

## 興味와 通俗化

[東光] (1927년 5월호)

(註: 이 글은 東光誌가 東亞日報社를 스스로  
批判해 달라고 要請한데 대한 寄稿임)

興味와 通俗化에 좀 主力하였으면, 새 社會를 建設하는데 基礎가 될 만한 모든 斬新한 道德的 觀念과 科學問議에 對한 새로운 智識을 每號에 連載함을 볼 때에 항상 紙面을 通하여 嚴肅한 氣分이었습니다. 그 中에도 더욱 山翁先生이 一般 同胞 青年에게 對하여 敎訓한 文章에 對하여는 特히 數十年間 先生의 實踐한 誠忠을 披瀝한 것으로 봅니다. 그래서 더욱 言論界에서 一種 異彩를 發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내 愚見으로는 너무도 嚴肅한 氣分에만 偏重되어 一種의 敎科書 비슷한 感이 있고 興味方面이 缺如한 듯합니다. 이제부터는 從來의 氣分에 興味를 끝만한 文章이 添加되고 좀 더 一般 讀者가 잘 알아보게 通俗化하였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합니다.